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명 2024-6142

피의자 박진혁

고소인 송민지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 강창효, 김은광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1, 더스타일빌딩 9층

(전화) 02-592-1116 (팩스) 02-592-1118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가. 피의사실의 요지

2023. 11. 7.경 고소인의 거주지에서 성병(헤르페스)이 걸린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성관계하여 전염시키는 등 고소인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불송치 이유

- 피의자는 성병에 감염된 사실도 없고 고소인을 속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대구경북 건강보험공단의 회신 내역 및 참고인 ○○○ 피부과 원장의 진술로 보아 고소인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성관계하여 감염되었다고 불만한 증거 없다.
- 피의자 범죄사실 부인하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이의신청의 요지

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거짓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오판하였으며, 고소인이 기존에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피의자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 및 피의자가 고의로 또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성병을 옮겨 상해를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사미진의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합니다.

또한, 참고인 피부과 원장 1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만나기 전 성병을 가지지 않았다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경찰은 이를 불송치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던바, 이러한 점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하며, 구체적인 이의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3. 피의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병력이 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가. 피의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된 경위

1) 고소인은 피의자와의 첫 성관계 이후,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종합성병검사를 받았는데¹⁾, 해당 검사 결과는 잠복기로 인한 음성²⁾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증상이 낫지 않아 산부인과를 재방문하였더니 의사가 고소인의 음부를 살펴본 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의심된다, 저번 검사는 잠복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던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재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재검사 이후, 고소인은 곧바로 피의자를 비뇨의학과로 데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했고, 결과는 역시나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 양성이었습니다. 고소인 또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 피의자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검사 결과

피의자의 성병검사 결과 통지 문자메시지(고소장 첨부서류 3.)를 보면, 피의자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HSV type 2(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 IgG 양성, IgM 음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 1) 고소인은 성병, 특히 헤르페스에 대하여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와의 성관계 이후 음부에 이상이 생기자마자 산부인과를 내원했던 것입니다. 고소인이 성병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두려움을 피의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고소인이 피의자와 소위 썸을 타던 시기,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시기마다 고소인이 자신의 종합 성병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며 피의자에게 성병이 없냐고 수차례 확인한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고소장 제4면, 제5면,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3면, 제4면).
- 2) 재차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헤르페스 2형 양성 판정을 받을 당시 산부인과 의사가 진단한 내용입니다.

고소장 첨부서류 3. 피고소인의 성병검사 결과 통지 문자메시지

제목없음
[Web발신]
[청라맑은비뇨의학과]
박진혁님 안녕하십니까?

12/5 시행한 헤르페스검사 결과입니다

-HSV type 1 IgG :음성
-HSV type 1 IgM :음성
-HSV type 2 IgG :양성
-HSV type 2 IgM :음성
확인되었습니다.

IgG는 과거력,
IgM은 전파력(전염력)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 문자는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불가
합니다]

고소장 제3면 각주 2) 기재 및 고소장 첨부 참고자료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헤르페스 관련 진단검사의학정보 기재와 같이, IgG는 항체인데, IgG가 양성이라는
것은 IgG(항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과거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
에 감염된 전력(이전 감염, 과거력)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노292 판결에서도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감염
혈액검사에서 IGM 항체는 감염 초반기에 수치가 점점 상승하였다가 그후 감소하
고, IGG항체는 바이러스 감염 상태가 만성화됨에 따라 수치가 서서히 증가하였다
가 일정 수치가 계속하여 유지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참고자료 1. 광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노292 판결문 각주 1)).

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의자가 고소인을 만나기 이전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성병에 걸린 적 없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4. 피의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피의자가 성병 감염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점

1) 피의자는 본인이 휴학한 이후 수원에 거주했을 때³⁾, 자신의 성기에 수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주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그 이후로도 피곤할 때마다⁴⁾ 성기에 수포, 포진이 발생하여 간지럽거나 따끔한 증상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병원을 가지 않고, 알로에를 바르는 방식으로 자가치료를 했다”고 고소인에게 말했습니다[첨부서류 1. 2023. 12. 7.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추가), 고소장 첨부서류 5. 피고소인의 자인 및 사과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서류 1. 2023. 12. 5.자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2) 헤르페스 바이러스 제2형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성병 바이러스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위 바이러스 제1형과 제2형의 차이점, 발현 증상,

3) 경찰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고소인의 요양급여내역 자료 요청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해당 자료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의자는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10년 이상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증상이 발현할 때마다 자가 치료를 했기에,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회신내역에 헤르페스에 관한 언급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고소인이 피의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본 것만 6개월에 3번 이상입니다.

전염 경로, 바이러스 감염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자가치료 방법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된 이후, 신체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의학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증상에 부합하는 병명을 대략적으로 유추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수포, 포진이 발생하여 간지러움, 따끔거림의 증상을 느낀 신체 부위는 매우 민감한 성기 부분입니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성기에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당연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을 것이고,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 ‘수포, 성기’, ‘성기, 수포, 간지러움’ 등 부위와 증상을 조합하면, 성병 또는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첨부서류 2-1. 네이버 검색화면, 첨부서류 2-2 구글 검색화면].

3) 상술한 대로 피의자는 ‘성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알로에를 바르며 자가치료를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글 또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알로에 헤르페스’를 검색하면, 알로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효과적이라는 여러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자주 재발한다는 사실 및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알로에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첨부서류 3. ‘알로에 헤르페스’ 검색 화면).

4)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성기 부분의 수포를 직접 보여준 사실도 있고, ‘헤르페스 증상이 올라오면 간지러워서 해당 부위를 보게 되고, 간지러운 증상이 느

껴지고, 수포가 육안으로 딱 보인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첨부서류 4. 헤르페스 증상 관련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한, 피의자는 2024. 12. 5.경 헤르페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⁵⁾ 증세로 힘들어 하는 고소인에게 ‘어제 주사는 안맞았지? 난 그때(헤르페스 증상 올라왔을 때) 주사 맞고 바로 낫던데’ 라고 말한 사실도 있습니다(첨부서류 5. 헤르페스 주사치료 관련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5)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의자가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다. 성병 감염을 인지하였음에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관계하자고 설득한 점

위와 같이 피의자는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전 고소인에게 ‘10년 전 딱 한 번 성기에 물집이 생긴 이후 성기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⁶⁾’ 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전 여자친구가 간호사다, 성병 같은 게 있었으면, 의료인인 내 전 여자친구가 먼저 알고,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전 여자친구가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자주 받았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고소인을 안심시킨 뒤 콘돔을 착용하지 말자고 제안한 후 성관계를 했습니다.

5) 고소인이 2024. 12. 4.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헤르페스가 의심된다고 듣고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결과를 대기하면서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헤르페스 걸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하자 피의자가 헤르페스 감염 전력을 자인한 이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입니다.

6) 이에 대해 피의자의 말이 자꾸 달라지자 고소인이 추궁하였고, 피의자가 거짓임을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소장 제6면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1면 내지 제3면에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에 감염된 전력이 있고, 그것이 완치되지 않으며 빈번히 재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⁷⁾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병을 걱정하던 고소인을 안심시키며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하여 성관계를 한 후 고소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힌바, 당시 피의자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5. 참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경찰은 피의자가 내원하였던 병원 한 곳의 의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피의자는 여러 곳의 비뇨기과, 피부과를 다닌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그중 병원 한 곳의 의사에게만 확인을 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의자의 내원 당시 상병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7) 백번 양보하여, 그 증상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수포나 발진이 발생하여 간지러움, 따가움을 느낀 부위가 성기인 점, 그러한 증상이 1년에 1~2회 발생할 때마다 꾸준히 자가 치료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최소한 피의자는 성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 진술 하나만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피의자가 해당 피부과를 내원했을 당시 성기 부분에 대해 진료를 희망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성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헤르페스 증상이 아닌 다른 증상으로 인해 내원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의사가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헤르페스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의사는 ‘피의자가 헤르페스에 감염된 전력이 없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6. 예비적 주장 -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설령 피의자에게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술한 바와 같이 피의자는 성기 부위의 주기적인 수포 발생 등으로 인해 본인이 성병 등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매우 쉽게 알 수 있었는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착용하여 성병을 옮기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으며, 만연히 본인의 쾌락만을 위하여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성병에 감염되었으며, 그 결과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축소사실인 과실치상죄 성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 결 어

이상과 같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 첨부서류 1. 2023. 12. 7.자 카카오톡 대화내역(추가)
- 첨부서류 2-1. 네이버 검색화면, 첨부서류
- 첨부서류 2-2 구글 검색화면
- 첨부서류 3. ‘알로에 헤르페스’ 검색 화면
- 첨부서류 4. 헤르페스 증상 관련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 첨부서류 5. 헤르페스 주사치료 관련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참 고 자 료

- 참고자료 1. 광주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3노292 판결문

2025. 3. .

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KANG CHANG HYO

변호사 강 창 효



변호사 김 은 광



변호사 박 성 현



대구북부경찰서 귀중

5:10

47

< 44

박진혁

🔍 ☰



응

오전 10:58

어제 결과받았는데

앞으로 치료 어떻게

해야하냐

물으니까

포진있을때

오전 10:58



박진혁

응

오전 10:58

주사 맞으면

된다네

그리고 오빠

오전 10:58

23. 12. 07. 목



박진혁

응

오전 10:58

평상시에

포진났는지 잘 알수가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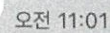
왜냐면 내기

거리브의가

+ 메시지 입력

😊 #

첨부서류
1



#

5:10

47

< 44

박진혁

🔍 ☰

근데

오빠 그때 갔던병원

어디야

오전 11:01



박진혁

수원이었어

오전 11:01

오빠 수원에 있었어??

왜??

오전 11:01



박진혁

그때 일한다고

휴학하고 잠시 있었지

오전 11:02

그때이후로는

병원 한번도 안가고

23. 12. 07. 목

??

오전 11:02



박진혁

응

오전 11:02

그냥 알로에

젤만바르고



오전 11:02



메시지 입력



5:10

47

< 44

박진혁

🔍 ☰



응

오전 11:02

그냥 알로에

젤만바르고 끝?

오전 11:02



박진혁

그냥 피부병인가했으니까 ㅠ

오전 11:02

아픈데 병원 왜 안갔노 ㅠ

오전 11:02

오빠 말대로 주사맞으먄 바로 나왔다미

오전 11:03



박진혁

어제말했자나 ㅠ 그런거 좀 개의치않아서 ㅠ
ㅠ

오전 11:03

응..

오전 11:03



박진혁

그냥 넘긴거같애 ㅠ ㅠ

23. 12. 07. 목

내가 잘알아봤어야했는데 ㅠ

오전 11:03

근데 오빠 그거야나

오전 11:03



박진혁

에휴 ㅠ

오전 11:03



+ 메시지 입력



#

이미지 블로그 카페 지식iN 인플루언서 동영상 쇼핑 뉴스 > ...

Q. 성기포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기에 물집? 포진이 같은 자리에 자주 나는데 약을 먹어도 주 간격으로 자주 올라와요 ...

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상담의 길명철 입니다. 주로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 감염이 된 후 재활성화 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것으로 볼 수 있겠...



길명철 **의사** 비뇨의학과 · 2023.01.18.

지식iN 더보기 →

이미지

이미지 신고하기



이미지 더보기 →


인기글

 :D · 4주 전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재발 관리하는 방법

- 고열과 몸살 - 성기 통증 / 작열감 / 배뇨통 - 간지러움 - 궤양 및 수포
성기통증 및 배뇨통, 간지러움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수준으로 고통스럽
다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 재발 증상은... 첫 발현 후 1년동안은 한달에...




 29의 일기 · 2024.09.18.

엘린플러스 크림, 트리마졸 크림 항진균제 칸디다 질염, 무좀, ...

보통 엘린플러스 크림은 피부 증상인 백선, 어루러기에 사용한다고도 적
혀 있지만, 여성분들 성기 염증인 칸디다 질염에 많이 사용되는 크림이라
고 하더군요 (간지러움, 수포, 염증, 두드러기 증상에 주로 사용하면 효...




 Herpes Cure · 2025.01.06.

성기 기동? 안쪽 간지러움 전조증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헤르페스 2형 보균자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재발은 수포가 생겼었는데 지금은
수포는 전혀 없고 기동쪽? 속안에만 계속 간지러운데 이거 전조 증상인가요..? 비상용으로
항상 발트렉스 구비해두는데 먹어야하나 고민되서요ㅠㅠ 혹시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성기 1형인데 혹시 저랑 비슷한 증상 있으신가요?

저랑 비슷한 증상있으신분들있나요??

 맛집러버 남원장의 건강이야기 · 2024.06.12.

성병 PCR 검사의 장점과 비용

이외에도 피부의 수포, 성기의 간지러움, 하복부 통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성병을 검사하는 방
법은 소변이나 전립선 액을 이용한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PCR 검사...



블로그 카페 이미지 지식iN 인플루언서 동영상 쇼핑 뉴스 < > ...

👉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검색결과 제외하고 보기

▶ 분당제생병원 · www.dmc.or.kr > dept

음부 포진(성기 헤르페스)

성기 부위에 작은 물집이 모여 가려움이나 따가움 또는 화끈거림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일차 감염시는 성 접촉 후 3~14일의 잠복기가 지나서 나타나며, 2~4일이 더 지나면 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차 감염은 3주 정도 지속됩니다. 재발은 남성에게 훨씬 더 흔...

음부 포진(성기 헤르페스)

성기 부위에 작은 물집이 모여 가려움이나 따가움 또는 화끈거림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일...

관련문서 더보기 >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health.kdca.go.kr > healthinfo

'반복되는 입술 물집,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반복되는 입술 물집,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나쁠 때 마다 입술에 물집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지요? 혹은 엉덩이나 성기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얼굴이나 몸의 특정부위 피부에 반복...



🌐 광양사랑병원 · www.gysarang.com > Module

[건강 Q&A] '입술' 주변에 가렵고 따가운 '물집'이 자주 생기는...

◇ 입술 포진, 성기 포진과 발생 원인이 같다"피부과 의사 김대우" 입술 주변 포진과 성기 주변 포진은 모두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해 생깁니다. 그 유형에 따라, 입 주위 단순포진은 보통 단순포진바이러스(헤르페스 ...





수포 성기



전체 이미지 동영상 쇼핑 짧은 동영상 뉴스 도서 더보기

도구

AI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성기에 수포가 생기는 질환으로는 **성기 헤르페스**와 **성기 주변 수포 '성병성 림프 육아종'**이 있습니다.

성기 헤르페스

- 헤르페스 바이러스(HSV)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피부 성병으로, 성기에 통증을 동반한 물집이 생깁니다.
- 성접촉 3~7일 경과 후 홍반성 피부 병변과 수포가 나타나며, 궤양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 그 자체로는 큰 중요성을 갖지 않고 치유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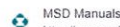
더보기

헤르페스(성기 단순 포진) 란? - 서울N비뇨기과 구로
성기 헤르페스는 대표적인 피부 성병의 하나입니다. HSV라 불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성기에 통증을...

서울N비뇨기과 구로

성기 주변 수포 '성병성 림프 육아종' - 건강정보 - 차케어스

주로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발생합니다. 성기 부위의 수포와...



https://www.msdmanuals.com... 포진 바이러스 감염

음부 포진 - 감염 - MSD 매뉴얼 - 일반인용

음부 포진은 생식기와 그 주위에 작고, 아프며, 재적으로 가득 찬 물집의 재발 에피소드를 야기하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로 인한 성병입니다.



서울N비뇨기과 구로

https://snurologyguro.com... contents > sub04 > sub04_05

헤르페스(성기 단순 포진) 란?

성기 헤르페스는 대표적인 피부 성병의 하나입니다. HSV라 불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성기에 통증을 동반한 물집이 발생하게 됩니다. 헤르페스는 그 자체로는...



포진 성기 따가움



전체 이미지 쇼핑 동영상 짧은 동영상 뉴스 웹 더보기

도구

AI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성기 부위에 생기는 단순포진은 **성기 주위가 가렵고 통증을 유발하는 작은 수포**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성기 헤르페스라고도 불리며, 성적으로 왕성한 젊은 성인에게 호발합니다.

증상

- 성기 주위가 가렵고 통증을 유발하는 작은 수포가 생깁니다.
- 수포는 24시간 이내에 터지며 붉은색의 궤양이 됩니다.
- 발열, 두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헤르페스감염증(단순포진) - 국가건강정보포털 - 질병관리청

일차 감염인 경우 발열, 두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함께 생식기 부위 통증, 가려움, 화끈거림 등이 발...

국가건강정보포털

음부포진 - 대한피부과학회

성기 부위 궤양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주로 단순포진 바이러스 2형에 의해 발생하며...



https://www.msdmanuals.com... 포진 바이러스 감염

음부 포진 - 감염 - MSD 매뉴얼 - 일반인용

음부 포진은 생식기 또는 그 주위에 물집 또는 궤양을 유발하고, 보통 처음 감염되었을 때 발열 및 전신적으로 아픈 느낌인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바이러스는 종종 구강...



대한피부과학회

https://www.dermatol.or.kr... new > general > disease

음부포진

성기 부위 궤양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주로 단순포진 바이러스 2형에 의해 발생하나, 단순포진 바이러스 1형에서도 구강-성기 접촉 후에 10~40%에서 발생할 수 있다. 성...

첨부서류

2-2



수포 성기 따가움



전체 이미지 쇼핑 동영상 짧은 동영상 뉴스 웹 : 더보기

도구

AI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성기에 수포가 생기고 따가움을 느끼는 증상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성기 단순 포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상

- 성기 주위가 가렵고 통증을 유발하는 작은 수포가 생깁니다
- 수포는 24시간 이내에 터지며 붉은색의 껍질이 됩니다
- 성기 바깥 부분 및 항문의 피부가 붉게 변하고 짓무르고 헐게 됩니다

특징

더보기

헤르페스(성기 단순 포진) 란? - 서울N비뇨기과 구로
성기 헤르페스는 대표적인 피부 성병의 하나입니다. HSV라 불리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성기에 통증을...

성기단순포진 - 창원메트로병원
증상이 심한 경우 고열, 인후염과 림프선병증을 동반하며, 얼굴, 입술, 혀, 입안 점막 등에서 통증이 있는...

MSD Manuals
<https://www.msdmanuals.com> > 포진 바이러스 감염 :

음부 포진 - 감염 - MSD 매뉴얼 - 일반인용

음부 포진은 생식기 또는 그 주위에 물집 또는 궤양을 유발하고, 보통 저음 감염되었을 때 발열 및 전신적으로 아픈 느낌인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바이러스는 종종 구강, ...

서울N비뇨기과 구로
https://snurologyguro.com/contents/sub04/sub04_05 :

헤르페스(성기 단순 포진) 란?

성기 헤르페스의 가장 흔한 증상은 성기가 빨갛게 발적되거나, 여러 개의 물집이 생기거나, 혹은 물집이 깨져서 고름이나 궤양, 딱지 등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성...

하이닥
<https://news.hidoc.co.kr/news/articleView> :

입술물집, 헤르페스 증상 완화에 좋은 천연재료들

2017. 12. 21. — 알로에를 헤르페스 증상 부위에 바르면 통증도 빨리 완화된다. 코코넛 오일, △ 코코넛 오일 = 코코넛 오일의 지방산에 풍부한 라우르산(lauric acid) ...



NAVER
<https://blog.naver.com/suejwang> :

알로에의 효능

2006. 8. 10. — 극소적으로 사용된 알로에 베라는 세균은 물론, 열포진, 구진, 헤르페스, 대상포진 등을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죽이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

NAVER
<https://blog.naver.com/tearstree> :

헤르페스, 대상포진, 입술물집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천연 ...

2018. 3. 12. — ... 알로에 베라는 약용 알로에라고도 불리며, 헤르페스에 의한 구순포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알로에를 헤르페스 증상 부위에 바르면,

미디어데일
<http://www.mediadale.com/news/articleView> :

헤르페스 바이러스 자연 치유

2020. 4. 28. — 알로에 베라 젤의 항균 및 항진균작용은 헤르페스의 출현을 지연하며 헤르페스 부위의 회복을 가속화 한다. 자용 증자 추출물은 항진균 및 항바이러스 ...

오픈닷컴 (OPLE.COM)
https://www.ople.com/shop/healthInfo_conpage :

촉촉한 입술매끈한 입 속

알로에 베라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구순포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알로에를 헤르페스 증상 부위에 바르면 통증도 빨리 완화됩니다.

첨부서류 3

블로그 카페 이미지 지식iN 인플루언서 동영상 쇼핑 뉴스 ⌵ > ...

💬 댕동 · blog.naver.com > alaid1959

헤르페스 자연치료 가능한가

2024.01.13. 예를 들어, 알로에 베라는 헤르페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젤을 헤르페스에 감염된 부위에 바르면 염증을 줄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맛있는것만 먹고 싶은 여노의 일상 이야기 · 2024.12.16.

헤르페스 2형 치료, 재발을 줄이는 5가지 방법

알로에 베라(Aloe Vera) 알로에 베라 젤은 헤르페스로 인한 피부 염증과 가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항염증 성분이 있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치유 속도를 높입니다. 리신(Lysine) 섭취 리신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 ceonewmoon.com > 헤르페스-2형-치료법-10가지-항바이러스제-크림-아연-치료기간

헤르페스 2형 치료법 10가지 : 항바이러스제 크림 아연 치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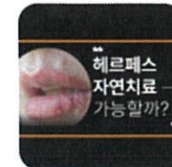
2024.09.28. 알로에 베라는 피부 치유와 진정 효과로 잘 알려져 있으며, 헤르페스 2형의 증상 완화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젤은 감염 부위에 바르면 가려움증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피부 재생을 촉진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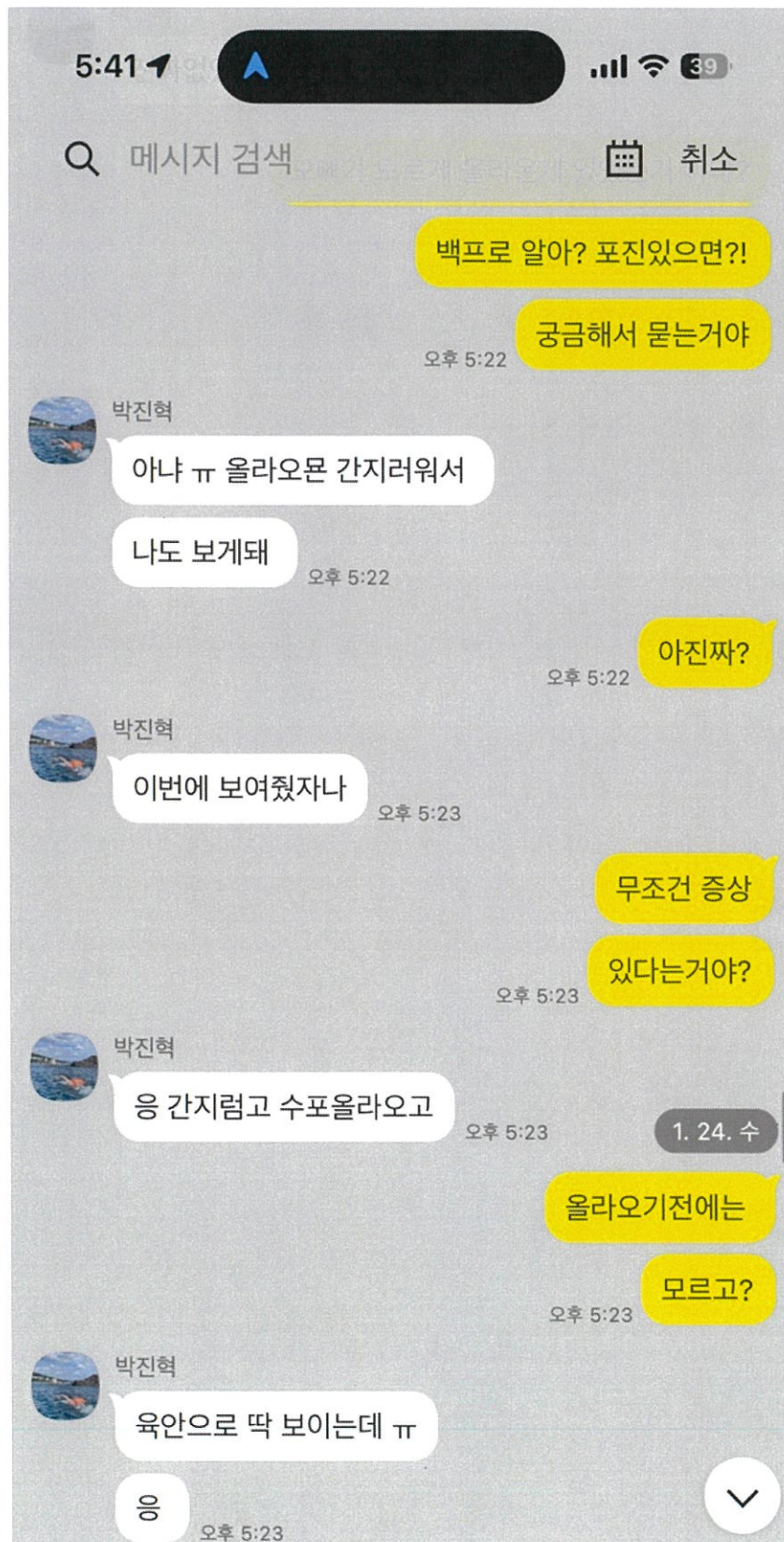


🍷 헤르페스 대상포진 HSV 환우 정보 모임 · 3주 전

헤르페스 자연치료 가능할까?

치료 알로에 베라(Aloe Vera): 진정 효과와 피부 재생 도움 코코넛 오일: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어 보습 및 감염 예방 마늘 추출물: 항바이러스 및 항균 효과 있음 2. 자연치료의 한계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첨부서류
4



박진혁

아니 없었어

어제 주사는 안맞았지?

오전 8:49

응

주사보다

먹는약니

이

센가봐

어제 속 계속올려져리더라

오전 8:49

23.12.05. 화

자는데

오전 8:50



박진혁

난 그때 주사 맞고 바로 낮던데

니 자다가 속안좋다한거 기억난다 ㅏ

오전 8:50

아 갓었

첨부서류
5

광주지방법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23노292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승희(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성용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3373 판결
판결선고	2024. 7. 17.

참고자료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시 자신이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헤르페스 감염 내지 헤르페스로 인한 요로감염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란 제5행의 “방광염”을 “요로감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시 자신의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보균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바이러스의 전염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손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21. 8. 9. ‘성기에 수포가 발생’한 증상을 이유로 H비뇨의학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성기 수포 증상은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의 전형적인 발현증상인바, 위 병원의 의사 E도 같은 날 ‘성기 수포 발생 증상’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증상으로 의심된다”고 안내한 후 위 바이러스 치료약과 연고 5일분을 처방하였다. 2021. 8. 10.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결과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요도염’이 확인되었다. E은 원심법정에서 ‘소변검사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임상적으로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공판기록 69면), E이 2021. 8. 10. 위 소변검사 결과를 피고인에게 안내하였으나, 위 검사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라는 진단을 내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추가 혈액검사나 수포조직검사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료 및 검사를 받은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2021년 9월 초순 내지 중순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9월 말경부터 피해자와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곤하면 입술에 포진이 생긴다. ‘아씨클로버’라는 연고를 바르면 일주일이면 낫는다. 성기 주변에 모낭염 등이 자주 발생하여 브라질리언 왁스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고, 2021년 12월 말경 피해자가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20대부터 헤르페스를 앓고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헤르페스 보균자이다”고 말하였다(공판기록 41, 42, 49면).

③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는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성병 바이러스로, 인터넷 검색 등으로 위 바이러스 제1형과 제2형의 차이점, 발현 증상 및 전염 경로, 바이러스 감염 검사의 종류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피해자의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감염 및 그로 인한 요로감염 등이 밝혀지자, 피해자에게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의 전염 방

식과 위 바이러스로 유발되는 방광염, 질염 등의 질병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24, 25면).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가족력 및 평소 피고인에게 발현된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상과 피해자와 교제하기 불과 한 달 전 무렵 성기에 수포가 발생하는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받고 치료약을 처방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시 자신이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보균자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소변검사 결과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라는 확정적 진단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는 일반인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소변검사결과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 혈액검사나 수포조직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L비뇨의학과 의원에 대한 2023. 10. 17. 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보균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및 위 바이러스가 유발한 요로감염에 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2021년 9월 말경부터 피고인과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2021. 12. 19. 피고인과 마지막 성관계를 한 후 심한 배뇨통과 골반 통증을 느꼈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급성방광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골반통증 및 하반신 통증 증상이 더 심해졌고, 이에 같은 달 27일 L비뇨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감염 관련 소변 및 혈액 검사를 받았으며, 위 검사결과 소변 검사에서 ‘양성’, 혈액검사서 ‘음성’이 나왔다. 위 병원의 의사 M은 피해자의 증상을 ‘헤르페스로 인한 방광염’으로 진단하고 항바이러스제 등을 투약하였으며, 위 처지에 따라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었다.

②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감염된지 며칠 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에서는 소변에서만 위 바이러스

가 발견되어 피해자에 대한 검사결과와 같이 소변검사결과는 ‘양성’이나, 혈액검사 결과는 ‘음성(IGM 항체 및 IGG 항체 모두 음성)’이 나올 수 있다(공판기록 66면). <각주1> 피해자에 대한 위 검사결과가 나오자 피고인도 2021. 12. 31. 혈액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IGG 항체 수치가 ‘양성’으로 나왔으며, 이에 위 혈액검사를 시행한 M은 ‘피고인이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거력이 인정된다’고 진단하였다(증거기록 1권 7면).

③ 소변이 생성되어 이동 및 배출되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요로감염이라고 통칭하고 그 중 일부를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는 배뇨통이 발생하는 요로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서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이외에 가드넬라균(*Gardnerella Vaginalis*) 등이 검출되었으나, 위 균은 질내에 살고 있는 일종의 공생균으로 주로 세균성 ‘질염’의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이 법원의 L비뇨의학과 의원에 대한 2023. 10. 1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증거기록 1권 6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감염 관련 증상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없고, 과거 급성방광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내역들이 있으나 2020. 10.경 이후부터 이 사건 전까지 급성방광염 내지 요로감염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작한 2021년 9월 말경부터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은 2021년 12월 말경까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방광염”을 “요로감염”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이 법원의 L비뇨의학과 의원에 대한 2023. 10. 17.자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는 언제든 재발이 가능한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다. 피해자는 향후 성관계 등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되었고, 향후 분만 시점에 병변이 있으면 신생아 감염을 막기 위해 질식 분만이 아닌 제왕절개술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위험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준석 서지혜

각주1: 일반적으로 헤르페스 제2형 바이러스 감염 혈액검사에서 IGM 항체는 감염 초반기에 수치가 점점 상승하였다가 그후 감소하고, IGG항체는 바이러스 감염상태가 만성화됨에 따라 수치가 서서히 증가하였다가 일정 수치가 계속하여 유지된다.